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신품(愛身品) ②

惡行(惡身) 악행위신
 愚以(愚易) 우이위이
 善最(善安) 선최안신
 愚以(愚難) 우이위난

악행은 제 몸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이 쉽게 저지르고
 선행은 제 몸을 편안케 하지만
 어리석은 이 어렵게 여긴다

如(如)眞人(眞人) 교진인교
 以(以)道(道)活(活)身(身)도활신
 愚(愚)者(者)疾(疾)之(之)우자질지
 而(而)爲(爲)惡(惡)惡(惡)견이위악

저 참사람의 가르침은
 도로써 몸을 살리지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미워해
 그를 보고 악이라 한다

行(行)惡(惡)惡(惡)행악악
 如(如)種(種)苦(苦)종고종
 惡(惡)自(自)受(受)악자수죄
 善(善)自(自)受(受)선자수복
 亦(亦)各(各)須(須)역각수숙
 彼(彼)不(不)自(自)代(代)괴불자대

“선이나 악은 반드시 익는것 남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네”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 것
 마치 괴로움의 종자를 심은것 같으니
 악은 스스로 죄를 받고
 선은 절로 복을 받는다
 선이나 악은 반드시 익는것
 남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네

生(生)折(折)轉(轉)愛(愛) 생적락우

마치 수레가 길을 갈때에
 평탄하고 큰 길을 버리고서
 나쁜 길을 따라간다면
 굴대를 부러뜨리는 걱정생긴다

瞿(瞿)善(善)得(得)善(善)습선득선
 亦(亦)如(如)種(種)福(福)역여종복
 自(自)利(利)利(利)자리리인
 益(益)而(而)不(不)費(費)익이불비
 欲(欲)知(知)身(身)욕지리신
 瞿(瞿)難(難)爲(爲)계문위회

離(離)法(法)如(如)은법어시
 從(從)非(非)法(法)增(增)종비법증
 惡(惡)守(守)至(至)死(死)우수지사
 亦(亦)有(有)折(折)患(患)역유절환

법을 여읜도 그와같이서
 법 아닌 것 따르는 일 늘어나면
 어리석은 그대로 죽음에 이르리니
 거기에도 부러지는 우환이 있다

선을 익히면 선업을 받는것
 그것은 달콤한 종자를 심은것 같으니
 자기를 돕고 남을 이롭게 하며
 더욱더 늘어나 없어지지 않는다
 제 몸 이로운 것 알고자 하거든
 계율지니고 많이 듣는게 으뜸이네

順(順)行(行)正(正)도순행정도
 勿(勿)離(離)邪(邪)業(業)물수사업
 行(行)住(住)臥(臥)安(安)행주와안
 世(世)世(世)無(無)患(患)세세무환

如(如)有(有)自(自)愛(愛)여유자우
 欲(欲)生(生)天(天)욕생천상
 敬(敬)樂(樂)樂(樂)법경락문법
 當(當)念(念)佛(佛)당념불교

바른 도를 제대로 따라 행하고
 신행 업을 따르지 말라
 행주좌와에서 편안하고
 세세생생에 근심 없으리라

만일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龍 眼

그것이 스스로 걱정되거나
 법을 받들어 즐거이 듣고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라

凡(凡)用(用)必(必)豫(豫)범용필여려
 勿(勿)以(以)損(損)所(所)務(務)물이손소무
 如(如)是(是)感(感)日(日)修(修)여시의일수
 事(事)務(務)不(不)失(失)時(時)사무부심시

제 할 일 반드시 미리 생각해
 힘쓸바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이같이 마음먹고 날로 닦으면
 힘써야 할 일 때를 잃지 않는다

夫(夫)治(治)事(事)之(之)士(士)부치사지사
 能(能)至(至)終(終)成(成)利(利)능지종성리
 眞(眞)見(見)身(身)應(應)行(行)지견신응행
 如(如)是(是)得(得)所(所)欲(欲)여시득소욕

대개 일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지막에 가서 이익을 얻는다
 진실한 소견을 몸으로 행하니
 이같이 해서 바라던것 얻게된다

세속품(世俗品) ①

如(如)車(車)行(行)道(道)여거행도
 捨(捨)平(平)大(大)途(途)사평대도
 從(從)邪(邪)僻(僻)路(路)종사경패

야옹스님 (前 총화종 종정)

의상존을 만나러 가는 길이 출가의 길
 이 되었습니다. 1917년 선산 도리사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의 때도 다 씻지
 못한 일곱살에 문경 사불산 대승사로 들
 어갔습니다. 대승사를 오르는 그 산길은
 의상존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며 종내
 에는 한량없는 부처님 법의 바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
 저 산길을 걸어 올랐고 다리가 아픈 가
 운데 눈이 휘둥그레해지게 웅장한 절집
 에 들어갔으며 먹는 밥맛이 어떤 것인지
 를 따져볼 겨를도 못 갖도록 어리둥절
 하지만 했던 기억이 아련할 뿐입니다.

의상존은 대승사의 스님이셨고 양연옹
 (梁然翁)이라던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강사도 지내시고 주지도 지내셨으며
 설법도 유유상상 했고 법패작법에도 소
 질을 보이심으로 이름이 널리 퍼졌던 것
 입니다. 그 의상존, 연옹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불연(佛緣)
 과 혈연(血緣)을 함께 붙은 어린 가슴이
 라지만 절집생활 보다가 속가에 대한 그
 리움이 훨씬 간절하지 않았으랴.

일곱의 나이에서 스물셋까지 대승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때는 그게 전부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왜
 정시대였고 대승사만한 도량이 없었습니
 다. 강원과 선원이 전국 제일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물고고 빨래하며
 연옹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를 배우고
 천수경과 송주(諡號) 예불절차 등을 배
 웠고 그런 세월 속에서 나도 절사람이
 되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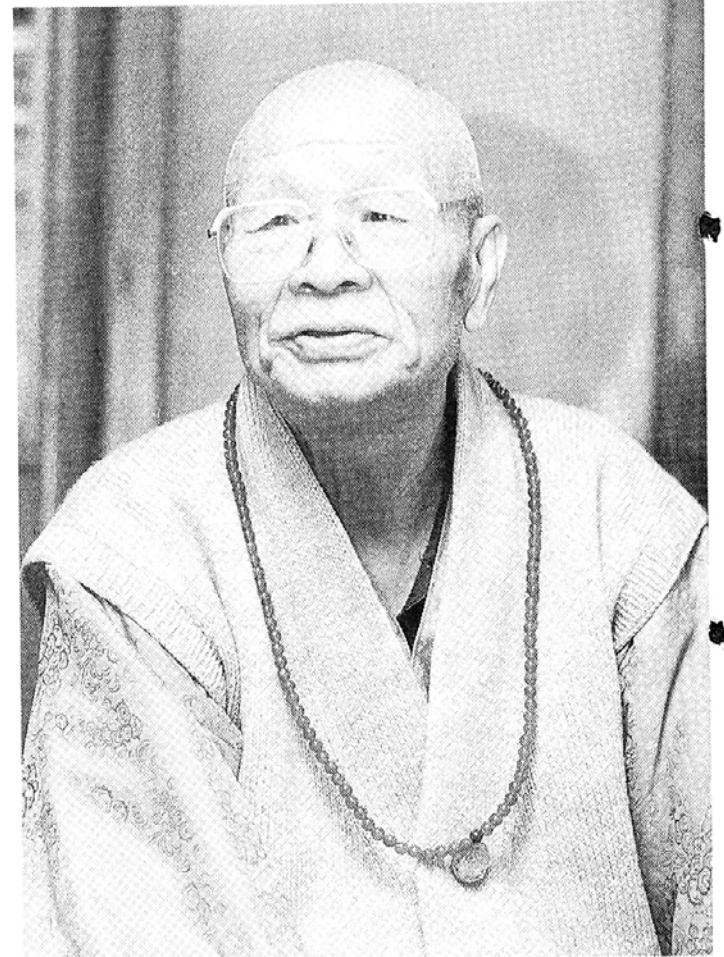
지금의 대승사는 당시의 삼분의 일 규
 모에 불과합니다. 강원에는 전국에서 모
 여든 3백여명의 학승이 있었고 쌍련선원
 에는 1백여명의 선객이 공안을 꿰고 있
 었습니다. '천강사불(天降四佛) 지용쌍련
 (地湧雙蓮)'이라. 하늘에서 사불이 내려
 오고 쌍련이 땅에서 솟아 올랐다는 전설
 이 아니라도 대승사의 사격(寺格)은
 대단했습니다. 나는 강원에서 대교까지
 를 볼으로 이력을 마쳤는데 강원은 학인
 이 많고 강사 강백도 많다보니 늘 규율
 이 엄했고 공부 매서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스님들 시봉도 돌아야 했으니 공
 부는 밤잠을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었지
 요.

다음날 공부할 것이 정해지면 하루 전
 에 각자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산봉(算稱)을 흔들며 밝힌 사람
 이 공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은 전
 통교습인 논강법이었습니다. 산봉으로 차
 례를 정해 먼저 밝힌 사람이 중강(中講)

을 맡아 경의 내용을 상세히 새겨야 하
 고 뒤에 뽑힌 사람은 발기(發起)를 맡아
 글의 앞뒤를 두루 꿰어야 했습니다. 그런
 게 논강을 하다가 어려운 대목을 만나면
 강주스님(당시는 설해(雪海)스님이 강주
 었다)에게 문강(問講)을 가곤 했습니다.
 논강에서 공부한 정도가 쉽게 들음이 나
 는 것이고 누가 뽑힐지 알 길이 없으니
 공부를 안할 도리가 없었지요. 논강에서
 자주 지적을 받아 게으름뱅이로 물리면
 쫓겨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무
 서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월종강(月終講)이
 었습니다. 다같이 공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점검이란 다음날인 경전을 출중
 외우고 오차없이 뜻을 새기는 것이었습
 니다. 거기서도 말문이 막혀 지적을 받
 면 혼재감이 났고, 거듭거듭 막히면 쫓겨
 나는 꼴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1917년 경북 선산출생
- 1923년 문경 대승사 양연옹(梁然翁)스님 은사로 출가
- 대승사 강원시 대교과 수료
- 예천 용문사 영남제일강원 강사
- 42년 일본 임제대, 용곡대 유학
- 창원 국화종교교 교감
- 총화종 제8, 11대 종정
- 서울 승봉사 주석
- 저서 <一如의境地> <一如眞蹟>
- <金剛經五家解講> 등



“깨달음은 자기 마음안에 있지 법당한 부처님 무릎에 있는 것 아니다 불성 드러내면 부처요 묻어두면 중생”

강원시절을 생각하면 잊지 못할 도반
 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안변 석왕사에서
 내려 왔다는 문종지(文叢地)라는 스님이
 었습니다. 이름부터 재미난 스님은 내가
 제법 눈이 밝다는 소문을 듣고 공부를
 겨루고자 왔다고 했는데, 정말 공부를 열
 심히 했고 총기가 대단했지요. 둘이 공부
 를 다투기도 했지만 더러 의기투합이 되
 어 서로의 가슴을 내보이기도 했었습니
 다.

공부는 매서웠고 규율은 엄했고 밤잠
 은 늘 부족했지만 그러나 힘줄지는 않았
 습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정진력이었으리
 라. 젊은 혈기에 푸른 정신이 뭉쳐져 밤

잠을 설치며 공부 즐거움이기도 했던
 겹니다.

그러나 사실, 공부만이 다는 아니었습
 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잡사(雜事)가 많
 은 것은 세속의 일만이 아니어서 강원
 규율이 엄한만큼 그 눈길을 피해 즐기는
 파격의 즐거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문종지스님이 슬며시 와서는 "초
 막에 가지 않으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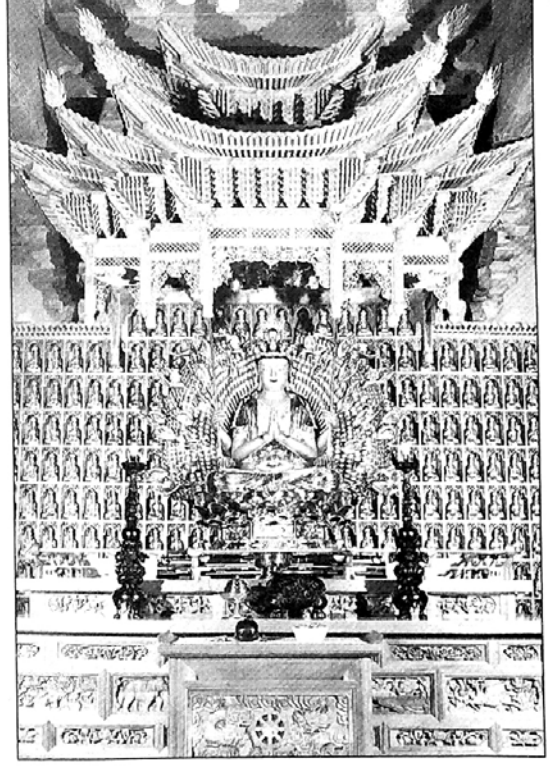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
 처했습니다. 산 아랫 마을에 초가집 술도
 가가 있었고 더러 어른스님들 눈을 속여
 그리로 내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문종
 지스님과 의기투합된 나는 10리길의 밤

길을 단숨에 달려 내려가 막걸리의 텁텁
 한 맛에 내 몸을 맡겼었습니다. 그때 분
 명 나는 그 막걸리는 파계가 아니라고
 믿었었으니 지금도 파계가 지계다를 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막걸리 한 동
 이로 밤을 새우고 도량씩 직전에 절로
 돌아온 날의 그 은밀한 재미가 더 큰 파
 계 내지는 고장집에 대한 그리움 따위의
 잡념을 물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속
 스텐로 회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산빛을 따라 흘러가 스무살에
 백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3년
 후에 대교를 다 마치고는 전강을 받았습
 니다. 전강은 여러 강백들에게 받았으
 므로 지금에 와서 강백을 추릴 수는 없습
 니다. 그리고 대승사를 나와 예천 용문사
 영남제일강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스물
 세살부터 삼년간 강백으로 후배들의 경
 전공부를 살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용
 문사 주지는 사형(師兄)되는 분으로 김
 대용(金大應)스님 이셨습니다.

서울로 가서 대학을 다닐 생각도 있었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